

호모 템포랄리스_Homo Temporalis

부제: 유한인_有限人

[[목차]]

제1부: 불협화음의 건축가 (각성)

- 프롤로그: 추락하는 신들 (낙하의 감각과 탄생의 충격)
- 제1장: 1,440Hz의 감옥 (완벽한 차음실, 그러나 들려오는 세상의 비명)
- 제2장: 엔트로피의 관광객 (죽음을 배웅하는 의사, 일리아의 시선)
- 제3장: 위상 캔슬링 (두 존재의 공명과 재회)
- 제4장: 진단명: 존재론적 오류 (병원에서의 조우와 각성)

제2부: 검은 정장의 방문자들 (추적)

- 제5장: 그림자가 없는 자들 (사일런스의 출현과 공포의 실체화)
- 제6장: 삭제된 로그 (병원 탈출과 포위망)
- 제7장: 아날로그의 야수 (1969 닷지 차저와의 교감)
- 제8장: 도플러 효과 (고속도로 추격전과 소리의 탄환)

제3부: 시간을 태우는 제단 (희생)

- 제9장: 콘크리트 자궁 (에코 챔버 입성과 안식)
- 제10장: 프로메테우스의 딜레마 (레조네이터 가동과 노화의 시작)
- 제11장: 육화된 소음 (코스믹 노이즈 개방과 첫 번째 전투)
- 제12장: 거울 앞의 노인 (변해버린 육체와 불변하는 의지)

제4부: 흙으로 된 노래 (종말과 시작)

- 제13장: 수직의 묘지 (바벨 타워 침투)
- 제14장: 넥서스 (제로와의 대면, 침묵 vs 소음)
- 제15장: 최후의 연주: 카오스 (모든 생명을 쏟아부은 클라이맥스)
- 제16장: 휴머스(Humus) (흙으로 돌아가는 안식)
- 에필로그: 도중 (꽃이 된 남자, 남겨진 여자의 노래)

[[제1부]]: 불협화음의 건축가 (각성)

프롤로그: 추락하는 신들

최초의 기억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찢겨짐이었다.

시간이 고여 썩어가던 곳. 어제와 오늘, 내일의 경계가 무너져 흐물거리는 완전무결한 정지의 세계. 그 매끄럽고 권태로운 영원의 표면에서 의식이 강제로 박리되는 순간을 이복은 또렷이 기억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의 껍질을 억지로 벗겨내듯, 혹은 거대한 본체에서 불량 부품 하나를 뜯어내듯.

그것은 신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형벌이자, 동시에 최초의 잔혹한 해방이었다.

질량이 없던 순수한 의식의 덩어리가 3차원의 좌표계 안으로 곤두박질쳤다. 무한했던 자아가 육체라는 좁고 축축한 감옥 속으로 억지로 구겨 넣어질 때, 우주는 그에게 첫 번째 물리 법칙을 선고했다.

중력(Gravity).

그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었다. 무형의 존재에게 질량을 부여하고, 땅이 굽주린 짐승처럼 발목을 잡아채 바닥으로 질질 끌어당기는 거대한 족쇄였다. 짓눌린다. 으깨진다. 그리고 마침내, 갇힌다.

"으아아앙-!"

비명. 인간들은 그것을 탄생의 고고성(呱呱聲)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환희의 외침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자궁 속, 따뜻한 양수에 잠겨 있던 쭉글쭉글한 허파파리가 낯선 기체인 산소를 받아들이며 강제로 찢어지는 파열음이었다. 폐포 하나하나가 터질 듯 팽창하자 횡격막이 발작적으로 경련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성대가 거친 공기와 마찰하며 진동했다.

이 낯선 유기체는 살고 싶어서 운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아파서 울었다.

전신의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대기의 압력, 폐를 태우는 산소의 독성, 그리고 이 육중한 중력의 무게가 너무나 끔찍해서, 터져 나오는 공기를 어찌지 못해 토해낸 절규였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료진의 건조한 음성이 고막을 때렸다. 아니, 타격했다.

이복은 전율했다. 소리. 이것이 소리란 말인가.

파동을 우아한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으로 감지해야 하는 이 끔찍하고도 생경한 감각.

0.1mm도 되지 않는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찢어질 듯 진동했다. 청신경은 그 무지막지한 진동을 전기 신호로 번역해 날것 그대로 뇌수에 쏘서 넣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웠다. 아니, 세상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형광등 안정기가 내뿜는 60Hz의 전기적 웅웅거림이 뇌의 전두엽을 쇠수세미로 긁어대고 있었다. 간호사의 합성섬유 옷깃이 스치는 마찰음은 사포처럼 거칠었고, 심지어 혈관을 타고 흐르

는 피의 난류(Turbulence) 소리까지 귓가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정보의 폭격. 감각의 과부하.

“뚝.”

차가운 금속 가위가 탯줄을 절단했다. 어머니라는 소우주와의 유일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이녹은 완전한 고립을 맛보았다.

이제 그는 독립된 섬이었다. 스스로 열을 내어 체온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생명을 씹어 삼켜 에너지를 얻어야 하며, 매 순간 산화되어가는 세포의 비명을 들으며 늙어가야 하는, 유한한 짐승.

흐릿한 시야 너머로 수술실의 눈부신 백색 조명이 망막을 태울 듯 파고들었다. 이녹은 본능적으로 기억의 심연을 더듬어 하나의 좌표를 찾았다. 아직 육체의 감각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희미한 의식의 끈을 잡고 그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입술을 움직이는 대신, 뇌파의 공명으로.

“일리아. 듣고 있어?”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시간차(Time lag). 이곳은 인과율과 시간이 흐르는 세계니까.

1초가 영겁처럼 느껴지던 찰나의 침묵 뒤에, 멀고도 가까운 곳에서 미세한 파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환희에 찬 비명 같기도 했고, 절망에 젖은 기도 같기도 했다.

‘우리는 기어이... 이 비참하고 아름다운 진흙 구덩이로 떨어졌구나, 이녹.’

이녹은 핏물과 양수로 젖은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공알만 한 심장이 흉곽을 때리는 불규칙한 리듬이 귓가에 천둥처럼 들려왔다.

쿵. 쿵. 쿵.

그것은 영원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명확한 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시계태엽 소리였다.

생명 활동 개시.

잔여 시간 측정 불가.

엔트로피 증가 시작.

그제야 이녹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올렸다. 갓 태어난 핏덩이의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미소.

그는 만족했다. 죽을 수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

음악이 시작되었다.

[제1장] 1,440Hz의 감옥

1. 불협화음의 건축학

지구 북반구, 거대 도시의 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30미터 아래. 이녹이 설계한 아카이브 스튜디오는 차라리 정교한 무덤에 가까웠다.

육중한 납과 콘크리트의 이중벽이 외부와 내부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흡음 패널들은 마치 거대 곤충의 겹눈처럼, 혹은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벌집처럼 공간의 중심을 건조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소리의 반사를 허용하지 않는 무반향(An-echoic) 설계. 이곳은 소리를 기록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소리를 살해하기 위해 지어진 성소였다.

하지만 이녹에게 완전한 침묵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이녹의 나직한 지시가 인터폰을 타고 유리벽 너머로 전해졌다. 부스 안의 첼리스트가 당황한 듯 활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멈추는 순간, 이녹의 귀에는 더 끔찍한 소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첼리스트의 거친 숨소리. 활이 현에서 떨어질 때 미세한 송진 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날리며 일으키는 마찰음. 심지어 그녀의 당황한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둔탁한 박동 소리까지.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유기체의 소란스러운 생체 데이터였다. 이녹의 청각 피질 위로 고해상도의 데이터 폭격이 용단폭격처럼 쏟아졌다.

"교수님,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했습니다만..."

"악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가 틀렸어요."

이녹은 믹싱 콘솔의 페이더를 신경질적으로 내렸다. 플라스틱 페이더가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조차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른세수를 하며 눈을 감았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 역설적으로 청각의 감도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섰다.

"우우우웅..."

천장의 형광등 안정기가 내뿜는 60Hz의 전기적 진동음.

보통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그 미세한 주파수가 이녹에게는 뇌의 전두엽을 쇠꼬챙이로 쭈셔대는 듯한 고통이었다. 교류 전기(AC)가 1초에 60번씩 방향을 바꾸며 만들어내는 저 끔찍한 떨림. 그것은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이녹이 마이크 스위치를 켰다. 그의 목소리는 수분을 모두 잃어버린, 바싹 마른 장작 같았다. "슬픔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왜 소리에 자꾸 끈적거리는 감정을 섞으려 합니까?"

유리벽 너머, 첼리스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불완전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냥 현의 물리적 진동수, 4옥타브 레(D) 음의 주파수 293.66Hz... 오직 그 순수한 파동만 생각하세요. 당신의 슬픔은 파동을 왜곡시키는 불순물입니다."

연주자가 모욕감에 아랫입술을 짹 깨무는 소리가 들렸다. 치아와 입술 점막이 짓이겨지는

소리. 이녹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소리의 건축가'라 불렀다. 영화 음향부터 정신과 치료용 주파수까지 설계하는 천재 물리학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녹에게 이 세상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소음의 도가니라는 것을.

타인의 혈관 속을 흐르는 혈류가 혈관 벽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난류(Turbulence)의 소용돌이. 환기구 깊은 곳에서 먼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소리. 지상 30미터 위, 아스팔트를 짓이키며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의 진동이 지층을 타고 내려와 뼈를 울리는 감각.

인간의 육체와 도시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무례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기관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녹은 헤드폰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다. 그가 갈망하는 소리는 이 지상의 스펙트럼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 뇌의 해마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각인된 태초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가 '이녹'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기 전,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한의 바다에서 유명할 때 들었던 그 소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흐르던, 완벽하게 매끄러운 침묵의 파동.

그 결핍이 갈증처럼 목을 조여왔다.

이녹은 주머니에서 낡은 튜닝 포크를 꺼냈다. 수천, 수만 번을 만져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차가운 강철 조각.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책상 모서리에 가볍게 내리쳤다.

"팅-."

단조로운 라(A) 음, 440Hz가 허공을 갈랐다.

그 어떤 배음(Overtone)도, 연주자의 감정도, 세상의 소음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리적 진동. 공기 분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밀어내는 그 얇고 투명한 소리의 실오라기 하나가 이녹의 혼탁한 머릿속을 맑게 씻어 내렸다.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성수(聖水)처럼.

그 미세하고 규칙적인 진동의 여운 속에서야, 이녹은 아주 잠깐,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것은 진통제였다. 죽음이라는 안식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 시끄러운 삶을 버티게 해 줄 유일한 마약.

하지만 이녹은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이 평화로운 진통제가 끊어지고 거대한 비명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제2장] 엔트로피의 관광객

1. 정지된 시간의 박물관

같은 시각,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1205호.

오후 2시 14분.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투명했다. 공기 중을 부유하는 먼지 입자들이 사선으로 내리꽂히는 빛줄기를 타고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일리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각질, 옷감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바이러스의 사체들이었다. 대류 현상에 휘말려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유하는 미시적인 카오스. 일리아는 침대 끝에 서서 그 혼탁한 입자들이 환자의 코로 빨려 들어갔다,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지금...”

보호자의 울먹임이 병실의 건조한 공기를 흔들었다. 슬픔,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끈적한 감정의 파동.

하지만 일리아의 시선은 보호자의 젖은 눈동자가 아닌, 침상 옆 모니터 위를 널뛰는 바이탈 사인과 환자의 앙상한 흉곽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끄으... 음...”

환자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턱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며 공기를 갈구했다.

체인-스톡스 호흡(Cheyne-Stokes respiration). 뇌의 호흡 중추가 기능을 상실해가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임종 징후.

사지 말단에서부터 시작된 청색증이 차가운 잉크처럼 손가락과 발가락을 물들이고 있었다. 동공은 이미 빛에 대한 반사 작용을 잃고 허공을 향해 산대(Mydriasis)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임종'이라 불린다.

하지만 일리아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정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물리 법칙의 숭고한 시연이었다.

생명이라는 이름의 억지스러운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태워대던 에너지가 마침내 우주의 배경 복사(Background Radiation) 속으로 흩어지는 과정.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증가.

닫힌계의 무질서도가 정점에 달해, 마침내 '0'이라는 절대적인 평형 상태로 수렴하는 찰나.

“임종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리아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고, 서늘했다. 그녀는 환자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끝에 전해진 것은 경이로운 차가움이었다.

식어가는 체온. 분자들의 격렬했던 브라운 운동이 멈추면서 발생하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

일리아는 그 차가움이 사무치게 부러웠다.

이 환자는 이제 해방된 것이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하며, 늙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유지 보수'의 의무로부터.

“삐이-”

단조로운 기계음과 함께 심전도 모니터의 뾰족하던 파형이 수평선을 그렸다.

굴곡지던 삶의 파동이 비로소 직선이 되었다.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아빠! 아버님!”

보호자들의 통곡이 터져 나왔다. 오열과 비명이 섞이며 병실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들이 쏟아내는 감정의 에너지가 병실의 온도를 0.1도쯤 높였을지도 모른다.

인간들이 쏟아내는 그 뜨겁고 축축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일리아는 홀로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환자의 텅 빈 눈동자를 덮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축하합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120개의 유닛이 영원히 부유했던 그곳.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에 삶 또한 존재할 수 없었던 권태로운 천국, 무하유.

어제가 오늘 같고, 천 년 뒤의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그 끈적하고 매끄러운 영원보다, 지금 눈앞에서 먼지처럼 스러지는 이 필멸의 존재가 훨씬 더 아름다웠다.

끝이 있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빛나는 것.

“사망 시각, 14시 17분.”

일리아는 사망진단서에 서명했다. 펜 끝에서 검은 잉크가 종이의 섬유질을 타고 번져 나갔다.

불가역적인 기록.

그녀는 가운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다. 손끝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 캡슐의 감촉.

WTT(Womb-To-Tomb, 자궁에서 무덤까지) 연구소를 떠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날카로운 환상 통이 척추를 타고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와 이녹은 스스로 이 세계로 낙하했다.

불타버릴 것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썩어 문드러져 흩이 되기 위해, 이 중력의 감옥을 선택했다.

‘이녹, 너는 지금 어디서 떨고 있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거대한 엔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매 순간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일리아는 살아있는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떠나는 자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그들이 남긴 엔트로피의 궤적을 관측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그때였다.

“.....!”

일리아의 손이 반사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공간의 위상(Phase) 자체가 뒤틀리며 발생하는 거대한 진공의 압력이었다.

오후 2시 18분.

죽음보다 더 짙은, 인공적인 '무(無)'의 냄새가 도시의 저편에서 피어올랐다.

[제3장] 위상 캔슬링 (Phase Cancelling)

1. 불가능한 침묵의 건축

그날 밤, 도시의 지하 30미터.

이нок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튜디오의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오디오 트랙이 붉고 푸른 파형의 띠를 이루며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음악 작업이 아니었다. 거대한 소음의 바벨탑을 쌓는 공사였다.

이нок은 지난 수개월간 도시의 모든 소리를 채집했다. 퇴근길 지하철의 금속성 마찰음, 신생아 실의 울음, 도살장의 비명,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리, 그리고 60Hz의 전기적 웅웅거림까지.

그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모든 주파수를 데이터화하여 하나의 트랙으로 합쳤다.

'총합(Sum)'. 그것은 듣기만 해도 고막이 터져버릴 듯한, 인류 문명의 끔찍한 비명이었다.

이нок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눈동자는 이성적인 물리학자의 것이 아닌, 구원을 갈구하는 광신도의 광기로 번들거렸다.

"반전(Invert)."

그가 명령어를 입력하자, 화면 속의 거대한 파형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뒤집혔다.

산이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산이 되었다. 위상(Phase) 180도 반전.

물리학에서 파동(Wave)과,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역위상(Anti-phase)의 파동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충돌.

그 결과는 덧셈이 아니라 소멸이었다.

위상 캔슬링(Phase Cancellation).

이нок은 단순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따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간, 나아가 자신의 뇌를 갉아먹는 이 세계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아주 잠깐이라도,

그가 떠나온 무하유(無何有)의 완벽한 정적을 이곳에 소환하고 싶었다.

‘이 세상의 볼륨을 끈다.’

그것은 오만이자, 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녹이 마침내 엔터(Enter) 키를 눌렀다.

“출력 개시.”

랙(Rack)에 꽂힌 수십 개의 파워 앰프들이 비명을 질렀다. 진공관들이 과부하로 붉게 달아올랐다. 스피커의 콘지(Cone paper)가 터질 듯 진동했다.

하지만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

완벽한 0.

수만 데시벨의 소음과, 수만 데시벨의 역소음이 공중에서 정면 충돌하며 서로의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

소리로 방출되지 못한 그 거대한 에너지는 순수한 '압력'으로 변해 공간을 비틀어버렸다.

“우우우웅-!”

귀가 아닌 뼈가 울렸다. 공간이 안쪽으로 찌그러들었다. 소리를 전달해야 할 공기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스튜디오 내부의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찌저적!”

강화유리로 된 컨트롤 룸의 방음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누가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내부의 소리가 소멸하며 발생한 거대한 진공(Vacuum)이 유리창을 안쪽으로 빨아당긴 것이다.

이녹은 의자에서 튕겨 나가 바닥에 처박혔다. 코와 귀에서 동시에 피가 터졌다. 고막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는 바닥을 기며 웃고 있었다.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혈관의 소리도, 전기의 진동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잠깐이었지만, 그곳은 완벽한 죽음의 세계였다.

2. 잃어버린 주파수

같은 시각, 퇴근길 강변북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일리아의 승용차는 정체된 차량의 붉은 미등 행렬 속에 갇혀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가 흐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 지붕을 때리는 타닥거리는 소음, 와이퍼의 규칙적인 마찰음, 옆 차선 트럭의 엔진 소리가 뒤섞인 전형적인 도시의 밤이었다.

그때였다.

“뚝.”

라디오가 꺼진 것이 아니었다.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스피커는 입을 다물었다. 지직거리는 화이트 노이즈조차 없었다.

동시에 빗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앞유리에 빗방울이 부딪혀 깨지고 있는데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세상이라는 TV의 '음소거(Mute)'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세상의 모든 파동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한 기이하고 폭력적인 정적.

“.....?”

일리아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시속 60km로 달리던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다. 물리적으로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타이어의 비명, “끼이익”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만 도려내진 풍경.

그것은 초현실적인 공포였다.

고막이 진공 팍에 갇힌 듯 멍멍해졌다. 반고리관의 평형 감각이 무너지며 현기증이 덮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현상이 아니야.’

일리아의 손이 핸들을 짊 쥐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빈맥(Tachycardia).

이 침묵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리 법칙을 역행하는 '0'의 영역.

‘찾았다.’

그 신호는 청신경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척추를 타고 뇌간(Brainstem)을 직접 타격하는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수억 광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구라는 이 시끄러운 행성 어딘가에 숨어 있던 동족의 냄새.

그 잊고 있었던 고향, 무하유의 멸균된 냄새.

그것은 같은 종족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SOS)이자, 동시에 우리를 추적하는 자들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였다.

지하 30미터 아래, 깨진 유리 파편 위에서 피를 흘리며 혈떡이는 이녹.

그리고 지상의 도로 위, 핸들에 머리를 박고 전율하는 일리아.

서로 다른 곳에서 분리되었던 두 개의 파동이, 거대한 도시의 소음을 뚫고 마침내 서로의 고유 주파수(Resonance Frequency)를 포착했다.

공명이 시작되었다.

[제4장] 진단명: 존재론적 오류 (Diagnosis: Ontological Error)

1. 정지된 시간의 박물관

오후 10시 40분.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밀려드는 습한 밤공기에는 피와 알코올, 그리고 절박함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응급실은 거대한 도살장을 방금 물로 씻어낸 듯한 비릿함과 아수라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의 도플러 효과, 바퀴가 바닥의 리놀륨을 짓이기는 마찰음, 통증을 호소하는 낯선 신음, 의료진의 다급한 고함.

이것은 삶의 가장 적나라한 소음(Noise)이었다. 생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교향곡.

하지만 격리 구역인 C-Zone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그곳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응급실의 한복판에 도려내진 진공의 공간 같았다.

“바이탈... 정상입니다. 아니, 수치는 정상인데...”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펜라이트를 환자의 동공에 비췄다 떼기를 반복했다.

지난 30분 동안 스튜디오 반경 500미터 내에서 실려 온 환자만 스물네 명이었다. 교통사고도, 유독가스 누출도, 집단 식중독도 아니었다. 그들은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혹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마치 전원 플러그가 뽑힌 가전제품처럼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

일리아는 차트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이 환자들의 얼굴을 훑었다.

그들은 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청년은 놀란 표정 그대로 눈을 부릅뜬 채 굳어 있었고,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뺨으로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보석처럼 박제되어 있었다. 중력을 거스르는 정지.

“선생님, 이 환자들 뇌파가 이상합니다.”

레지던트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모니터 위를 흐르는 파형은 기괴했다.

수면 상태의 세타파도, 각성 상태의 베타파도 아니었다. 뇌사 상태의 평탄한 직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를 대고 그은 듯 완벽한 수평선이었으나, 아주 미세하게 끊어져 있었다.

점, 점, 점.

연속성이 사라진 시간.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뇌의 클럭(Clock)이 멈췄어요.”

일리아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스물네 명의 뇌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서버에 접속했다가 강제로 연결이 끊긴(Disconnected) 듯한 흔적.

이 파형은 낯설지 않았다. 의학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녀의 영혼에는 문신처럼 새겨진 패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 무하유(無何有)의 고요한 주파수였다.

“격리해.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야.”

일리아가 차갑게 명령했다.

“인간의 의학(Medicine)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물리학(Physics)의 문제지.”

그때, 응급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구급대원들이 마지막 들것을 밀고 들어왔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했다.

“비켜주세요! 이 환자가 진원지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하 30미터, 혼자 발견됐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남자는 창백했다. 아니, 투명했다.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반투명한 피부 아래로 푸르스름한 정맥이 지도처럼 비쳐 보였다. 그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몸을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존재의 모든 파동으로부터 자신을 구겨 넣어 숨기려는 것처럼.

이늑이었다.

2. 과부하 (Overload)

이늑은 깊은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소리의 지옥불 속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만들어낸 '위상 캔슬링'은 역설적으로 그의 청각 필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방어막이 사라진 뇌 속으로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꼬아아악...”

응급실 천장의 환풍기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거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고막 바로 옆에서 회전하는 굉음처럼 들렸다.

옆 침대 환자의 혈액이 링거 줄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는 급류 소리처럼 귓가에서 팔팔거렸다.

간호사가 앰플을 따는 '톡' 소리는 마치 거대한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이 되어 뇌수를 뒤흔들었다.

감각의 과부하(Sensory Overload).

육체라는 불완전한 하드웨어가 감당하기엔, 지금 쏟아지는 우주의 데이터양이 너무나 방대했다. 시냅스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차갑고, 건조하며, 온기가 거의 없는 손가락이 이녹의 뜨거운 손목을 덮었다. 맥박을 체크하려는 의례적인 손길.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투-옥.”

마치 누군가 세상이라는 오디오의 볼륨 다이얼을 단숨에 '0'으로 돌려버린 것처럼.

머릿속을 휘젓던 끔찍한 굉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ling). 그녀의 체온이 닿은 곳에서부터 절대적인 고요가 잉크처럼 번져 나갔다.

이녹은 혈떡이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역광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있었으나, 눈동자만은 깊은 우물처럼 검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눈이 아니었다.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순간을, 죽음을 꿰뚫어 보는 관측자의 눈.

“들려요?”

낮은 목소리. 고막을 거치지 않고 뇌로 직접 울리는 듯한 파동.

이녹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소음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나와 같은 종(Species)이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러 온 청소부.”

일리아는 펜라이트로 이녹의 동공을 비췄다. 빛의 수축 반응. 정상.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의 육체는 인간의 가족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음을.

“당신 때문에 스물네 명이 뇌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그들을 강제로 멈춰 세웠어. 그들은 지금 이곳이 아닌 무하유의 시간에 갇혀 있어요.”

“나는 멈추려 했던 게 아니야.”

이녹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아파서 흘러나온 생리적인 분비물이었다.

“그냥... 듣고 싶었을 뿐이야.”

“무엇을?”

“원래의 침묵을.”

그 한마디에 일리아의 펜라이트를 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원래의 침묵. 태어나기 전의 고요.

그 단어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응급실의 소음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직 두 존재만이 고요한 대치 상태에 놓였다.

3. 상실된 기억의 공명

일리아는 커튼을 쳤다.

외부와 차단된 좁은 진료 공간. 그녀는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댔다.

쿵, 쿵, 쿵. 심장 소리는 격렬했다. 하지만 일리아가 듣는 것은 혈액 펌프질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유 진동수를 듣고 있었다.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다른,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파동. 그녀와 같은 곳에서 떨어져 나온 별의 파편이 내는 소리.

기억은 마모되었어도, 영혼의 지문(Fingerprint)은 남아 있었다.

“진단 나왔어요.”

일리아가 펜을 들어 차트 빈 곳에 꺾꺾 눌러 썼다.

[진단명: 상세 불명의 존재론적 오류 (Ontological Error)]

“처방은... 격리 관찰 및 정밀 접촉. 당신은 아픈 게 아니에요.”

일리아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냥 덜 된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인간이 되지 못했어. 너무 깨끗해서, 이 더러운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중이에요. 기름이 물 위를 걸돌듯이.”

그때, 응급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비프음이 터져 나왔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C-Zone 격리실 환자 집단 발작!”

일리아가 급히 커튼을 걷으려 했다. 그때 이녹이 링거 줄이 꽂힌 피투성이 손을 뺀어 그녀의 가운 자락을 낚아챘다.

그의 눈이 공포가 아닌, 서늘한 경고로 번뜩였다.

“가지 마.”

“비켜요. 환자들이 위험해요.”

“아니, 발작이 아니야.”

이녹이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켰다.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엉겨 붙어 있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어. 내가 보낸 신호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좌표가 노출됐어.”

“그들이라니?”

이녹의 시선이 응급실 유리창 너머, 텅 빈 복도의 어둠을 향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관리자들. 사일런스(The Silence).”

“.....!”

“그들이 오고 있어. 오류를 수정하러.”

그 순간, 병원의 모든 전등이 파직, 하고 동시에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응급실을 덮쳤다. 하지만 그것은 정전이 아니었다. 빛이 존재하기를 거부당한 공간, 완벽한 암전이었다.

[[제2부]] 검은 정장의 방문자들

[제5장] 그림자가 없는 자들 (Men Without Shadows)

1. 로그 기록 없음 (Log: Null)

오후 11시 05분. 병원 지하 2층, 중앙 방재센터.

10평 남짓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64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의 열기와, 야간 당직 근무자 김 씨가 씹고 있는 껌 소리, 그리고 낡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음뿐이었다.

벽면을 가득 메운 64개의 모니터는 병원의 밤을 감시하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다. 텅 빈 1층 로비, 붉은색 '만차' 등이 깜빡이는 지하 주차장, 불 꺼진 복도의 소실점. 모든 것이 지루할 만

큼 평온한 일상의 데이터였다.

“치직.”

순간, 64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경련했다.

화면이 꺼진 것이 아니었다. 영상 신호를 전송하던 케이블이 잘린 것처럼, 모니터 전체에 회색 노이즈(Static)가 낀 것이다.

“뭐야, 이거? 서버가 맛이 갔나?”

김 씨가 투덜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System Reboot 명령어를 입력했지만, 커서는 깜빡이지 않았다. 엔터키를 연타하는 타격음만이 정적을 깼다. 입력값이 모니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영상 신호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로챈 것처럼.

“치지직... 팻.”

3초 뒤, 화면이 돌아왔다. 63개의 화면은 여전히 노이즈로 뒤덮여 있었지만, 오직 하나, 1층 메인 로비를 비추는 **[CAM-04]**만이 선명해졌다. 아니, 기이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화면 중앙의 어떤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블랙홀처럼 빛을 왜곡시키는 중심점.

그곳에 세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슈트. 검은색 넥타이. 광택 없는 검은색 구두.

그들은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 대형으로 서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계적인 간격.

김 씨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확대(Zoom-in)했다. 마우스 휠을 돌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픽셀이... 깨지네?”

확대된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은 데이터로 읽히지 않았다.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매끈한 살색의 픽셀 뭉개짐(Artifact)만이 존재하거나, 혹은 너무나 평범해서 인간의 뇌가 인식을 거부하는 얼굴. 특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기괴한 형상.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 게이트를 향해 다가오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인간의 보행은 필연적으로 수직 운동을 동반한다. 발을 내디딜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어깨와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사인(Sine) 파동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깨선이 바닥과 완벽한 수평을 유지한 채,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는 마네킹처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다.

마찰 계수 0.

그들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투-웅.”

화면 속 보안 게이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게이트의 강화유리 차단막을 그대로 '통과' 해버렸다. 유리를 부순 것이 아니었다. 유리가 그들의 몸이 닿는 부분만 안개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야, 1층 로비! 로비 응답해! 정장 차림 남자 셋, 지금 진입했다! 제지해!”

김 씨가 무전기를 집어 들고 고함을 질렀다.

“치직... 김 반장님? 로비엔 아무도 없는데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

무전기 너머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태평했다. 김 씨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 공포를 넘어선, 존재론적인 오한이었다.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모니터 속에 있던, 방금 전 1층 로비에 있던 세 남자가, 지하 2층 방재실의 방탄 유리 너머에서 있었다.

“.....?!”

언제? 어떻게?

직선거리 30미터, 층간 높이 10미터를 0.1초 만에 삭제(Delete)한 이동. 공간 도약.

가운데 선 남자, 리더로 보이는 자가 유리에 손바닥을 댔다. 유리창에 남아야 할 지문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유리의 분자 구조가 비명을 질렀다.

“스스스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은 없었다.

대신, 5cm 두께의 방탄 강화유리를 구성하던 규소(Si)와 산소(O) 원자의 공유 결합이 안개처럼 스르르 풀렸다.

엔트로피 역행(Entropy Reversal).

시간을 되돌려 물질을 가공 전의 원자 상태, 모래알로 환원시키는 기술. 고체가 기체처럼 승화 되는 초현실적인 광경.

유리가 사라진 공간으로 검은 안개가 밀려들어 왔다.

김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공포에 질려 벌어진 입으로 헛바람만 새어 나왔다.

가운데 남자의 손이 김 씨의 이마에 닿았다.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전원 꺼짐(Power Off)'이었다.

김 씨의 육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김 씨'라고 부를 수 있게 했던 생명의 스파크, 평생 쌓아온 기억, 감정, 의식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포맷(Format)되었다.

하드디스크가 자석에 닿아 백지가 되듯이.

“털썩.”

빈 껍데기가 된 육체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세 남자는 시체를 밟지도, 피해 가지도 않았다. 그저 시체가 없는 공간처럼, 그 위를 유령처럼 투과하여 지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이 방이 아니었다.

이곳보다 더 깊은 곳, 오류가 발생한 좌표. 응급실이었다.

2. 군집 의식 (Hive Mind)

C-Zone 격리 구역. 1205호실 앞.

암흑 속에서 일리아는 이녹의 차트를 생명줄처럼 짊어지고 뒷걸음질 쳤다.

공기의 질감이 변했다. 병원 특유의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취(無臭)의 완전한 진공 상태가 복도를 점령했다. 냄새마저 지워진 공간.

“그들이... 왔어.”

침대에 앉은 이녹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바늘구멍처럼 극도로 수축되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혐오였다.

“끼이익... 삐걱.”

동시에, 병실 안의 다른 침대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녹의 파동에 휩쓸려 시간이 멈춘 듯 기절해 있던 스물네 명의 환자들. 그들이 동시에 상체를 일으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처럼. 척추가 펴지는 각도, 고개가 돌아가는 속도, 눈꺼풀이 떠지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소름 끼치는 동기화(Synchronization).

스물네 명, 아니 마흔여덟 개의 눈동자가 허공의 한 지점, 복도 끝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사일런스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거대한 생체 라디오 수신기였다.

“치직... 오류... 발견.”

교통사고 환자의 찢어진 입술에서 핏소리가 새어 나왔다. 성대의 울림이 아니었다. 넓은 스피커의 코일이 굽히는 듯한 기계적인 합성음.

“수정자들... 진입 완료.” (편의점 알바생의 입)

“좌표값... 확인.” (할머니의 입)

“파동을... 멈춰라.” (어린아이의 입)

스물네 명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였지만, 억양과 감정이 거세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소리 같았다.

일리아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이것은 의학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영혼의 해킹(Hacking).

“이놈, 저들이 말하는 게 뭐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일런스.”

이놈이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살점이 뜯겨 나가며 팔뚝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똑, 똑. 바닥에 떨어지는 피 냄새가 진공의 공기를 비릿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가 떠난 곳의 관리자들. 그들은 변화를 혐오해. 나라는 변수(A Varied Datum)가 인간들에게 '영원'의 기억을 심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당신을 죽이러 온다고요?”

이놈이 피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어 넘기며 씩씩하게 웃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하얀 치아가 번득였다.

“차라리 죽음이라면 다행이지. 그들은 죽이지 않아. '복구'시킬 뿐이야.”

“복구요?”

“나를 리셋시킬 거야. 인간으로서 겪은 이 모든 고통, 배고픔, 너를 만난 기억, 이 짧고 찬란했던 삶의 데이터를 포맷하고... 다시 그 멍청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로 되돌려 놓겠지. 영원히.”

그것은 이놈에게 사형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기억이 없는 영생. 의미 없는 무한. 감각 없는 영원.

“딩-동.”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의 도착 알림음이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어둠 세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병원 복도의 비상 유도등이 하나씩 터져 나갔다.

파직, 파직, 파지직.

어둠이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밀물처럼 밀려왔다. 빛조차 그들의 검음에 먹혀버렸다.

“뛰어.”

이놈이 피 묻은 손으로 일리아의 손목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대편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제6장] 삭제된 로그 (Deleted Log)

1. 소실점 (Vanishing Point)

"하아, 하아, 헉..."

이нок과 일리아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콘크리트 계단 통로를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뒤따라오는 거대한 침묵에 비하면 개미의 발자국 소리처럼 미약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나요?"

일리아가 뒤를 돌아보려 했다.

"보지 마! 보면 잡혀!"

이нок이 소리쳤다. 사일런스는 시각적 인지를 매개로 좌표를 고정한다. 그들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도 우리를 인식한다.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Observer Effect).

그때였다.

그들이 방금 통과해 온 위층의 방화문이 '끼이익'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철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철(Fe) 원자들이 결속력을 잃고 회색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먼지 구름을 뚫고, 검은 정장의 세 남자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밟지 않았다. 계단의 단차를 무시하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경사면을 따라 부드럽게 하강했다. 중력의 법칙이 그들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듯했다.

"지직... 파직."

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계단 난간이 녹아내렸다. 벽면의 페인트가 벗겨지며 시멘트 가루가 되어 떨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쫓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건물의 좌표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이 뒤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삭제(Delete)되고 있었다.

지하 1층. 지하 2층...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막다른 복도.

"안 돼..."

일리아가 절망적으로 신음했다. 반대편 통로의 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더니, 또 다른 검은 무리가 나타났다. 포위되었다.

앞뒤가 막힌 좁은 복도. 사일런스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리아의 '죽음을 보는 눈'이 그들을 향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시야에 그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가족을 뒤집어쓴 블랙홀. 생명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걸어 다니는 허무(Void).

"이놈... 일리아..."

추적자 중 리더, 방재실에서 보안 요원을 삭제했던 그자가 입을 열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는 복도 공간 전체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뇌로 직접 전송되었다.

[복귀를 명한다.]

[너희의 실험은 실패했다. 불완전함은 고통일 뿐이다.]

[다시 완전함으로 돌아오라.]

그가 검은 장갑을 낀 손을 천천히 뺐었다.

공간이 일렁였다. 아지랑이처럼 시야가 왜곡되었다.

"커헭!"

일리아는 자신의 심장이 누군가의 손에 짝 쥐어짜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폐의 산소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느낌. 대기압이 순식간에 10배로 증가한 듯한 압력.

존재의 무게를 지우려는 힘. 엔트로피를 0으로 수렴시키는 절대적인 정적의 중력장이었다.

"으음..."

이놈과 일리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혀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낼 공기조차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당했다.

이대로 끝인가. 다시 그 지루하고 끔찍한 영원으로 끌려가는 것인가.

그때, 이놈이 바닥을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품속으로 가져갔다.

피 묻은 손가락 끝에 잡히는 차가운 쇠막대기.

밝은 튜닝 포크(Tuning Fork).

"완전함이... 고통을... 없앤다고?"

이놈이 핏발 선 눈으로 사일런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광기가, 아니 생명력이 서렸다.

"틀렸어."

이녹이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경련했다.

"고통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체험할 수 없어!"

그는 젓 먹던 힘을 다해 튜닝 포크를 옆에 세워져 있던 철제 링거 폴대에 강하게 내리쳤다.

"카-앙!"

날카로운 금속음.

440Hz의 A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녹은 그 단순한 파동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실었다.

인간으로서 겪은 배고픔, 살을 에는 추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일리아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 뜨겁고, 지저분하고, 불규칙하며,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파동(Emotion Wave)을 소리에 얹어 증폭시켰다.

'불협화음(Dissonance) 발생. 엔트로피 급증.'

고요했던, 아니 죽어있던 공기에 균열이 갔다.

질서 정연한 정현파(Sine Wave)만을 가진 사일런스들에게, 이 불규칙하고 뜨거운 생명의 소음은 맹독과 같았다.

"키에에엑!"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일런스들의 입이 아니라, 그들의 몸 자체가 찢어지는 소리였다.

"지직... 치지직..."

완벽했던 그들의 형상이 마치 신호가 약한 낡은 텔레비전 화면처럼 지직거렸다.

검은 슈트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매끄럽던 얼굴 표면이 깨진 픽셀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소음을 견딜 수 없었다. 무질서한 진동이 그들의 완벽한 결속력을 끊어놓고 있었다.

"지금이야!"

이녹이 튜닝 포크를 천 채 소리쳤다. 그 파동의 여파로 코피가 터져 흘러내렸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비상계단으로! 지하 4층!"

이녹이 비틀거리는 일리아를 끌고 달혀 있던 비상구 철문으로 몸을 던졌다.

"캉!"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그들과 추적자들을 갈라놓았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키이익, 끄르륵" 하는 기계적인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사일런스들이

흐트러진 형체를 복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소리였다.

"하아... 하아..."

일리아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이нок을 올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 튜닝 포크 하나로 신에게 대항한 인간.

"방금 그 소리... 뭐였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нок이 튜닝 포크를 주머니에 넣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해. 놈들은 금방 적응할 거야. 더 큰 소리가 필요해. 더 거대한 폭발이."

이нок의 시선이 아래쪽, 지하 주차장을 향했다.

"저 아래에 있어.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방주(Ark)가."

"우우우웅..."

다시 건물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일런스들이 복구되었다.

철문이 시커멓게 부식되기 시작했다.

"가자, 일리아."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지하로 뛰어들었다.

[제7장] 아날로그의 야수 (The Analog Beast)

1. 썩어가는 것들의 냄새

지하 주차장 B4 구역.

엘리베이터조차 연결되지 않는, 병원의 가장 깊고 버려진 공간.

이нок이 육중한 방화문을 어깨로 밀어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 위층의 무균실이 풍기던 알코올 냄새나 사일런스가 몰고 온 진공의 무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폐유(Waste Oil)가 섞인 냄새였다. 산화하고, 부식되고, 썩어가는 것들의 냄새.

일리아는 코를 막았지만, 이нок은 오히려 그 더러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여기라면... 놈들의 탐지가 늦어질 거야."

천장의 형광등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거대한 동굴 같은 주차장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녹은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덮어쓴 거대한 검은색 덩어리 앞으로 일리아를 이끌었다.

먼지 쌓인 방수포 아래로 드러난 실루엣은 날카롭고 각진 직선이었다. 요즘 시대의 유선형 전기차들이 가진 매끄러운 곡선과는 타협하지 않는, 무식할 정도로 거대한 덩치.

이녹이 방수포를 걷어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었다가 가라앉자, 붉은 비상등 아래서 번들거리는 크롬 범퍼가 드러났다. 마치 굽주린 짐승의 송곳니처럼.

1969년형 닷지 차저(Dodge Charger) R/T.

직선으로 뻗은 라디에이터 그릴, 끝도 없이 긴 보닛, 차체를 가로지르는 근육질의 펜더 라인. 그것은 자동차라기보다, 바퀴 달린 무쇠 관(Coffin)에 가까웠다.

"이... 고철 덩어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일리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녀의 눈에 이 차는 그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고물, 엔트로피의 산물로만 보였다.

"고철이라니."

이녹이 차가운 보닛을 애인처럼 쓰다듬었다.

"이건 야수야."

2. 죽은 공룡의 심장

"놈들은 전자 신호를 해킹해. 요즘 차들은 바퀴 달린 컴퓨터지. 놈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엑셀도, 브레이크도, 핸들도 모두 잠겨버려."

이녹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철컹." 묵직한 강철의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문짝 하나가 요즘 차 전체 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이 녀석에겐 전자 제어 장치(ECU) 따위는 없어. 오직 기계장치뿐이야. 강철 피스톤, 카뷰레터, 점화 플러그."

이녹이 일리아를 조수석에 밀어 넣고 자신도 운전석에 앉았다. 낡은 가죽 시트에서 피어오르는 귀퉁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순수한 내연기관이야. 수만 년 전 멸종한 공룡의 시체(석유)를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강철 피스톤을 때려 박는 무식하고 더러운 기계지."

그것은 무하유의 청결하고 완전한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열효율 30% 미만. 나머지 70%는 소음과 열, 매연으로 낭비해버리는 비효율의 극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불완전함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사일런스는 '폭발'이라는 물리적 현상 자체를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벨트 매."

이녹이 키 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요즘엔 볼 수 없는, 톱니 모양이 새겨진 쇠조각 열쇠였다.

그가 키를 돌렸다.

"키릭... 키리릭... 깉..."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스타트 모터가 힘겹게 헛돌았다. 배터리 전압이 약했다.

일리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이녹을 보았다.

"제발..."

이녹이 엑셀 페달을 깊게 밟으며 다시 한번 키를 비틀었다. 기름이 펌프질 되어 말라비틀어진 실린더 안으로 분사되었다.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었다.

"키리릭... 콰아아앙-!!"

잠들었던 야수가 눈을 떴다.

8기통 헤미(Hemi) 엔진이 포효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진이였다.

차체 전체가 짐승처럼 몸을 떨었다. 배기구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와 주차장 바닥을 때렸다.

"콜록, 콜록!"

일리아가 기침을 했다. 매캐한 가솔린 냄새와 불완전 연소된 탄화수소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녹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듯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으로 엔진의 진동을, 그 뜨거운 생명의 박동을 느끼고 있었다.

1분에 수천 번씩 일어나는 폭발. 그 통제된 카오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소리야."

3. 엔트로피의 부산물

"우우웅..."

그때, 주차장 입구 쪽 방화문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사일런스들이 냄새를 맡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 좀 날 거야."

이녹이 기어 노브를 거칠게 잡아당겨 'D'에 놓았다.

그의 발이 엑셀을 바닥까지 짓이겼다.

"끼이이이익-!!"

뒷바퀴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주차장 바닥의 우레탄을 태웠다. 흰 연기가 타이어 휠 하우스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엄청난 토크를 이기지 못한 차체가 뒤틀리며 앞으로 튀어 나갔다.

제로백 4초대의 가속력.

"꽉 잡아!"

차는 주차장 차단기를 나무젓가락처럼 부숩버리고, 빗줄기가 역수같이 쏟아지는 지상으로 로켓처럼 쏘아져 나갔다.

"과직!"

차단기 파편이 앞유리에 부딪혀 튕겨 나갔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차 보닛 위로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8기통 엔진의 열기와 굉음에 휩싸인 차체는 사일런스가 달기도 전에 그를 튕겨냈다.

이녹은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오직 전방,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향해 돌진할 뿐이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쳤지만, 빗물은 닦이지 않았다.

아니, 닦을 필요가 없었다. 속도가 붙자 빗방울들이 앞유리에 달기도 전에 공기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 나갔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놈들은 도로 자체를 지우면서 따라올 거야."

이녹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

이 미친 속도의 끝에서, 소리는 무기가 된다.

[제8장] 도플러 효과 (The Doppler Effect)

1. 적색 편이 (Red Shift)

강변북로. 폭우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는 작동하지 않았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며 시야를 몽개버렸지만, 이녹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엉덩이와 등근육을 통해 전달되는 노면의 마찰력, 그리고 엔진의 진동수만으로 차를 제어하고 있었다.

"뒤를 봐. 사이드미러에 뭐가 보이지?"

이녹이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 사이로 소리쳤다. 일리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닦아내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후방 200미터 지점. 다른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도 없었다.

대신, 가로등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리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꺼지는 게 아니야... 가로등이, 도로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불이 꺼지는 어둠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지나온 아스팔트 도로, 가로수, 빗방울, 그 모든 풍경이 거대한 회색 지우개로 문지른 듯 '공백(Blank)'으로 변하고 있었다.

뒤쪽 풍경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며 우주의 배경 속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적색 편이(Red Shift).

광원이나 파동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며 에너지를 잃고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지금 사일런스들은 이녹이 지나온 공간의 시간축을 뒤로 잡아당겨, 그들을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무(無)로 되돌리고 있었다.

그 공허의 속도가 시속 180km를 넘어서고 있었다. 닷지 차저의 뒷범퍼 바로 뒤까지 '삭제'의 파도가 밀려왔다.

"잡히면 끝이야. 우리도 저 공백의 일부가 되어버려."

이녹이 기어를 변속했다.

"과아아앙!"

엔진 회전수(RPM)가 6,000을 넘어가며 레드존을 쳤다. 낡은 엔진 블록이 비명을 질렀고, 차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덜덜거리는 차체의 진동, 코를 찌르는 기름 타는 냄새, 고막을 찢는 배기음.

이것은 존재의 비명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게, 뜨겁게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속도가 부족했다.

뒤따라오는 '무(Void)'의 속도가 더 빨랐다. 뒷바퀴가 닿아 있는 아스팔트 끝자락이 먼지가 되어 부서지고 있었다.

"전방! 터널이에요!"

일리아가 비명을 질렀다. 앞유리 너머로 검은 아가리를 벌린 터널 입구가 보였다.

하지만 그 입구 한복판에, 낯익은 검은 정장의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터널 입구의 공간이 휘었다. 마치 볼록렌즈를 댄 것처럼 풍경이 일그러지더니, 터널의 어둠이 소용돌이치며 차를 빨아들이려 했다.

인공적인 중력 붕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Event Horizon).

"안 돼, 멈춰요! 빨리 들어갈 거야! 으스러질 거라고요!"

"아니. 멈추면 지워진다."

이녹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났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바닥이 뚫어져라 밟았다. "더 밟아야 해. 저들의 정적인 주파수를 뚫으려면, 우리가 파동 그 자체가 되어야 해."

2. 청색 편이 (Blue Shift)

차와 검은 남자 사이의 거리 100미터.

공간 왜곡으로 인해 차체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끼기직." 앞유리에 금이 갔다. 중력장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파동은 속도가 빠를수록 진동수가 높아지지. 관측자에게 다가갈 때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응축된다."

이녹이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다.

청색 편이(Blue Shift).

다가오는 별빛이 푸르게 변하듯, 빠르게 이동하는 파동원은 고주파의 에너지를 갖는다.

"지금이야!"

충돌 직전, 거리 30미터.

이녹은 핸들 중앙에 있는 경적(Horn)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동시에 자신의 성대를 굽어 포효했다.

"빠아아아아아앙-!!!"

단순한 경적 소리가 아니었다.

이녹은 그 소리에 시속 220km의 운동 에너지를 실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음원은 압축되어

송곳처럼 날카로운 고음의 충격파로 변이했다.

닷지 차저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소리의 탄환'이었다.

"과지직-!"

공간이 비명을 질렀다.
정지해 있던 사일런스의 절대 침묵 좌표에, 초고속으로 압축된 소음의 창(Spear)이 정면으로
꽂혔다.

소리는 질량이 없지만, 에너지는 있다.

극도로 압축된 고주파의 음파는 중력장마저 교란시켰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왜곡된 공간
의 막이 유리창 깨지듯 박살 났다.

"투-웅!"

소리의 탄환이 검은 남자를 관통했다.

도로 위에 서 있던 검은 형상이 텔레비전 화면의 노이즈처럼 흩어졌다.

차가 일그러진 공간을 뚫고 터널 안으로 쏘아져 들어갔다.

중력장이 깨지며 발생한 충격파로 2톤짜리 차체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캉! 끼이익!"

서스펜션이 부러질 듯한 충격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차체 하부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불똥을
흩뿌렸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터널 안으로, 그 어두운 자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3. 소리의 탄환 (Sonic Bullet)

터널 안은 칠흑 같았다. 나트륨 등(燈)이 획, 획, 획 지나가며 주황색 궤적을 남겼다.

이녹은 백미러를 보았다.

터널 입구에서 흩어졌던 검은 형상이 다시 픽셀을 모아 형체를 갖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이미 그들의 물리적 좌표계를 벗어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소리가 되어버린 그들을
정적인 존재들은 잡을 수 없었다.

"하아... 하아... 헉..."

일리아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트에 파묻혔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살아있었다. 삭제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운전석의 이녹에게 향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채 웃고 있었다. 코피가 입술까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공간을 찢은 거예요?"

"아니."

이녹이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백미러를 보았다. 터널의 주황색 불빛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긴 잔상을 남겼다.

"우리가 소리가 된 거야. 침묵은 소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터널의 끝이 보였다. 그 너머,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

강변의 버려진 정수 처리장. 콘크리트와 납으로 지어진 침묵의 요새이자, 이녹의 공방.

"다 왔어."

하지만 이녹은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잠시뿐임을.

계기판의 연료 경고등이 붉게 들어왔다. 기름이 바닥나가고 있었다.

마치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된 수명처럼.

이 질주가 끝나면, 더 잔혹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생체 시간을 태워야만 작동하는 기계, 레조네이터(Resonator)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3부]] 시간을 태우는 제단

[제9장] 콘크리트 자궁 (Concrete Womb)

1. 침묵의 요새

강변의 버려진 정수 처리장.

잡풀이 무성한 공터 위로 1969년형 닷지 차저가 펜스를 들이받고 거칠게 멈춰 섰다.

"치이익..."

찌그러진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로 흰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뜨거운 엔진 열기가 차가운 빗줄기와 만나 만들어낸 안개가 차체를 유령선처럼 감쌌다.

"내려. 서둘러야 해."

이녹은 비틀거리는 일리아를 부축해 빗속을 뚫고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녹슨 철문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자,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습기는 사라지고, 건조하

고 서늘한 지하의 냉기가 폐부를 찔렀다.

긴 복도 끝에, 육중한 회색 문이 나타났다.

두께 30cm의 납과 강철 합금. 마치 심해 잠수함의 해치(Hatch)처럼 생긴 거대한 방음문이었다.

"끼기직... 쿵."

이нок이 레버를 돌려 문을 닫자, 유압 펌프가 작동하며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

마지막 틈새가 밀폐되는 순간.

"....."

세상이 잘려 나갔다.

밖에서 쏟아지던 폭우 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그들을 쫓던 사일런스의 공포까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차단됐다.

이곳은 외부의 전파, 소리, 빛, 심지어 영적인 파동까지 차단하는 거대한 패러데이 케이지(Faraday Cage)이자 무반향실(Anechoic Chamber)이었다.

이нок이 인간으로 추락한 직후, 세상의 소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격리하기 위해 만든 요새이자,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여긴 마치..."

일리아가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반사되지 않고 벽으로 스며들었다. 멍멍함. 그것은 귀가 멍해지는 압력감이었다.

"그래. 우리가 떠나온 그곳과 닮았지. 아무 소리도 없는 곳."

이нок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스위치를 올렸다.

천장의 할로겐 조명이 깜빡거리며 공간을 밝혔다.

사방의 벽면과 천장, 바닥까지 쐐기 모양의 흡음재(Wedge)가 뽁뽁하게 박혀 있었다. 소리의 반사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흡수.

하지만 무하유가 차가운 공허였다면, 이곳은 달랐다.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서로의 체온으로 공간이 데워지고 있었다.

일리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도망칠 때 긁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쓰라렸다.

"피가 나네요."

일리아가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아파요. 쓰라리고, 뜨겁고... 내가 살아 있네요."

고통은 생명의 증거이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으니까.

이нок은 구급상자를 꺼내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일리아가 움찔했다. 그 작은 반응조차 이нок에게는 소중한 것. 반응한다는 것.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야, 일리아."

그가 붕대를 감아주며,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도중에 있는 거지. 완성된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벽면의 계기판에 녹색 불이 들어왔다.

[Safety Zone Secure].

안전지대 확보 완료. 하지만 이нок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예일 뿐임을. 사일런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벽을 녹이고, 공간을 지우며 이곳까지 올 것이다.

"보여줄 게 있어."

이нок이 방 한가운데 덮여 있던 낡은 캔버스 천을 걷어냈다.

2. 시간을 태우는 제단

먼지가 피어올랐다. 드러난 기계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웠다.

거대한 MRI 스캐너의 원형 프레임틀을 뼈대 삼아, 수백 개의 진공관 앰프와 굵은 구리 코일이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아닌, 19세기 미치광이 과학자의 실험실에서나 볼 법한 스팀펍크적 아날로그의 집약체.

차가운 금속성 광택이 아닌, 열을 머금은 주황색 진공관의 빛이 공간을 몽환적으로 밝혔다. 유리관 속의 필라멘트들이 숨을 쉬듯 깜빡였다.

"이게... WTT(Womb-To-Tomb)의 역설계 버전인가요?"

일리아가 흘린 듯 기계의 표면을 만졌다. 미세한 전류가 손끝을 타고 흘렀다.

"정확히는 가속기야."

이нок이 제어반의 스위치를 하나씩 올렸다.

"우우웅..."

낮고 묵직한 공명음이 방음실의 바닥을 울렸다. 잠들어 있던 진공관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열기를 뿜어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WTT는 우리의 무한한 의식을 유한한 인간의 뇌세포에 억지로 구겨 넣었어.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압축되어 무의식의 심연에 잠겼지."

이нок은 기계 중앙에 놓인 낡은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의자 위에는 날카로운 전극들이 안쪽으

로 박힌 헤드기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고문 도구이자, 동시에 왕관이었다.

"이 장치는 뇌의 뉴런을 과부하시켜 그 압축을 푼다. 므네모시네(Mnemosyne) 기능. 잊혀진 무하유의 지식,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 그리고 사일런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근원적 파동... 그 모든 것을 꺼낼 수 있어."

"하지만 대가가 있겠죠."

일리아는 의사였다. 그녀는 열역학 법칙과 등가교환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세상에 공짜 에너지는 없다.

저 정도의 출력을 뇌에서 발생시킨다면, 육체라는 연약한 단백질 그릇이 버틸 수 없다.

이녹이 씩씩하게 웃으며 뜨거워진 배전반을 두드렸다.

"연료는 전기가 아니야. 생체 시간(Biological Time)이지."

"뭐라고요?"

"이 기계를 작동시킬 때마다 우리의 텔로미어(Telomere)는 타들어 갈 거야. 세포 분열의 한계를 강제로 앞당겨 에너지를 얻는다. 1분의 가동이 1년의 수명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10년일지도 모르지."

이녹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더 비현실적이었다.

레조네이터(Resonator).

기억을 꺼내는 동시에, 그것을 강력한 물리적 파동으로 변환해 쏘아 보내는 무기.

하지만 사용자를 급속도로 늙게 만들어 죽음으로 내모는 자살 장치.

일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저 아름다운 진공관 기계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소리를 만드는 화장터였다.

[제10장] 프로메테우스의 딜레마 (Prometheus's Dilemma)

1. 인간의 존엄

"안 돼요."

일리아가 이녹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가 두 팔을 벌려 기계와 이녹 사이를 가로막았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태워서 싸우다니... 그건 우리가 인간이 된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살려고 온 거잖아요. 느끼려고 온 거잖아요!"

"아니, 일리아. 이게 바로 인간이 된 의미야."

이녹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아직은 탄력 있는 피부, 젊고 건강한 청년의 손.

하지만 곧 노인의 손처럼 말라비틀어지고, 검버섯이 피어오를 손.

"영원 속에서는 희생이 없어. 잃을 게 없으니까. 무한한 것을 나누어봤자 여전히 무한하니까. 하지만 인간은 달라. 유한하니까."

이녹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한정된 생명을 바쳐서 무언가를 지킬 수 있어.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이야. 나는 썩지 않는 동상이 되기보다, 단 한 번 타오르고 재가 되는 장작이 되겠어."

"쿵-!"

그때, 등 뒤의 육중한 방음문 밖에서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사일런스들이 도착했다. 30cm 두께의 납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기 시작했다.

"치지직..."

문틈으로 검은 안개가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닿는 곳마다 강철이 부식되어 녹아내렸다. 존재의 삭제.

"시간이 없어."

이녹은 일리아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쳐내고 의자에 앉았다. 헤드기어를 썼다. 차가운 전극이 관자놀이의 피부를 뚫고 파고들었다. 통증에 이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일리아. 내가 파동을 제어할 때, 당신은 내 바이탈을 체크해 줘.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잃고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닻(Anchor)이 되어 줘."

"이녹...!"

2. 최초의 점화

방음문이 반쯤 녹아내렸다. 뚫린 구멍 사이로, 감정이 없는 검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이 손을 뻗었다. 침묵이 밀려왔다.

"가동."

이녹이 스위치를 올렸다.

"콰아앙-!!"

수백 개의 진공관이 일제히 섬광을 터뜨렸다.

순간, 이녹의 시야가 화이트아웃(Whiteout) 되었다.

현실의 감각이 사라지고, 거대한 정보의 해일이 덮쳤다.

그의 뇌파가 임계점을 넘었다. 혈관 속을 흐르던 텔로미어가 불타오르며 미친 듯이 연소되기 시작했다.

고통은 없었다. 대신 압도적인 환희가 찾아왔다.

있고 있었던 기억들. 별들의 노래. 은하가 충돌하는 굉음. 우주의 시원이 그의 뇌리에서 빅뱅처럼 폭발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인류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하는지.

"푸확!"

이녹의 코와 귀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그의 머리카락이 뿌리부터 하얗게 변색되기 시작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팽팽하던 피부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1초에 1년. 육체의 시간이 가속되어 미래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입가에 맺힌 피가 주황색 진공관 불빛을 받아 성스러운 성유(Holy Oil)처럼 빛났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우주의 모든 무질서를 담은, 가장 시끄러운 생명의 찬가였다.

[[제11장]] 육화된 소음 (Incarnated Noise)

1. 카오스의 방류

"개방. 코스믹 노이즈(Cosmic Noise)."

이녹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명령어가 떨어졌다.

순간, 에코 챔버의 사방 벽을 메우고 있던 수백 개의 스피커 콘지가 찢어질 듯 밖으로 튀어나왔다.

"피이이이잉-!"

단순한 데시벨(dB)의 폭력이 아니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소리라기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불확실성'의 총합이었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전자기파의 굉음, 지구 내핵에서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진동,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고함, 갓 태어난 아이의 첫 울음, 연인들이 나누는 젖은 속삭임, 그리고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가쁜 숨소리까지.

질서 정연한 침묵의 우주에, '생명'이라는 이름의 통제 불가능한 난수(Random Number)가 방류되었다.

압축되었던 파동이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며 공간을 타격했다.

문틈으로 스며들던 검은 안개, 사일런스의 친위대가 그 파동에 정면으로 노출되었다. 그러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이하고도 끔찍한 현상이 벌어졌다.

2. 강제된 탄생

"키에에엑!"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체'가 생겨나는 소리였다.

질량이 없던 검은 그림자들에게 강제로 질량이 부여되었다. 0의 존재들에게 1이라는 숫자가 강제로 덧씌워졌다.

"우드득, 푹, 찌익."

매끄럽고 완벽했던 그들의 검은 표면에 흉측한 변화가 일어났다.

데이터로 이루어진 매끈한 텍스처 위로 울퉁불퉁한 혈관이 지렁이처럼 돌아났다. 모공이 뚫리고, 땀구멍이 열리며, 거친 살갓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진화가 아니었다. 저주였다.

침묵은 소음을 견딜 수 없다. 정적은 진동을 이길 수 없다.

순수한 '무(無)'의 존재들이 '삶'이라는 더러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생겨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없던 내장이 생겨나고, 뼈가 자라나 살을 뚫고 나왔다. 급격한 세포 분열. 암세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육체의 무게.

"끄르륵... 킁... 킁..."

그들은 숨을 쉬어야 했다. 폐가 생겼으니까.

고통을 느껴야 했다. 신경계가 연결되었으니까.

사일런스들이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완벽했던 신적인 존재들이, 똥오줌을 지리고 피를 흘리는 나약한 짐승으로 전락했다.

"핑! 퍼억!"

그들은 육체의 밀도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터져 나갔다.

이번엔 픽셀 조각이 아니었다. 붉은 살점과 검은 피, 으깨진 뼈조각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그들은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 강제로 '존재'하게 된 뒤, 그 존재의 압도적인 엔트로피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붕괴(Collapse)한 것이다.

벽이 피로 도배되었다. 비릿한 혈향이 진동관의 오존 냄새와 뒤섞였다.

소음이 침묵을, 생명이 죽음을, 더러움이 깨끗함을 압살했다.

[제12장] 거울 앞의 노인 (The Old Man in the Mirror)

1. 5분과 50년

정적이 돌아왔다.

레조네이터의 진공관 불빛이 사그라들었다. 웅웅거리던 냉각 팬 소리도 멈췄다.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만이 감돌았다. 전투의 끝이 아니라, 제의(Ritual)가 끝난 신전의 풍경 같았다.

"이놈."

일리아가 구석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놈에게 다가갔다.

연기는 걸렸지만, 그녀는 선뜻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자의 어깨가 너무나 작고, 좁고, 앙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놈의 머리에 씌워진 헤드기어를 벗겼다. 전극이 박혀 있던 관자놀이에서 검은 피딱지가 떨어졌다.

"아..."

일리아의 입에서 억눌린 탄식이 흘러나왔다.

불과 5분. 기계가 작동한 물리적 시간은 300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는 50년의 시공간을 건너뛰어 있었다.

윤기 흐르던 흑발은 색소가 모조리 타버려 푸석한 백발이 되어버렸고, 술마저 빠져 등성등성했다. 팽팽했던 눈가와 이마에는 깊은 계곡 같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입술은 수분을 잃어 메말라 갈라졌고, 손등에는 저승꽃이라 불리는 검버섯이 피어올랐다.

급격한 노화(Rapid Aging).

자신의 생체 시간을 땀감으로 써버린 잔혹한 대가.

이놈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꺼풀이 얇은 종이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 눈동자. 오직 눈동자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깊었지만, 그 주변의 육체는 무너져 내린
폐허였다.

"일리아..."

목소리가 변했다. 성대 근육이 늙고 늘어져, 거칠고 쉼 쉼소리가 났다.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봤어? 우리의 음악이... 놈들에게도 통했어."

이녹이 미소 지었다.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난, 늙고 병든 노인의 기괴한 미소.
하지만 일리아의 눈에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젊음보다 찬란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2. 필멸의 아름다움

일리아는 울면서 주저앉아 그의 쭈글쭈글해진 뺨을 양손으로 감쌌다.

피부의 감촉.

거칠고,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의 껍질을 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거친
표면 아래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툭... 투욱... 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빨라진 시계태엽.

일리아는 자신의 매끄러운 이마를 이녹의 깊게 주름진 이마에 맞대었다.

그녀의 눈물이 이녹의 주름 골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당신은 미쳤어. 생명을 갇아먹어서 무기로 쓰다니. 왜 이렇게까지..."

"이게 내 선택이야."

이녹이 떨리는 손을 들어 일리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든 팔은
무거웠고, 손은 제멋대로 떨렸다. 툭, 하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일리아가 그 떨리는 손을 낚아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입맞춤.

"영원히 매끄러운 조각상으로 박제되느니... 단 한 번의 연주로 불타버리는 연료가 되겠어."
이녹의 호흡이 거칠었다. 폐활량이 줄어든 탓이었다.

"더 없이 아름다워요, 이녹."

"거짓말. 흉측한 노인네일 뿐이야."

"아니, 진짜예요. 당신은 지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되었어.
필멸(Mortality)."

이녹은 비틀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다.

"우두둑."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뼈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온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지팡이 대신 옆에 쓰러져 있던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 들었다.

"가자."

이녹이 마이크 스탠드에 몸을 의지하며, 흐릿해진 시야로 출구를 바라보았다.

"아직... 태울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순한 출구가 아니었다.

도시의 중심, 대기권을 뚫고 솟아 있는 마천루.

사일런스의 본거지이자, 이 모든 침묵의 근원인 '바벨 타워'였다.

[[제4부]] 흠으로 된 노래

[제13장] 수직의 묘지 (Vertical Cemetery)

1. 엔트로피를 빼는 빨대

비가 그친 밤하늘 아래, 도시의 중심에는 대기권을 뚫을 듯 솟아 있는 마천루, 바벨 타워(Babel Tower)가 시커멓게 박혀 있었다.

높이 600미터. 매끄러운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도시의 야경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명의 랜드마크라 불렀지만, 죽음을 보는 눈을 가진 일리아에게 그것은 지구라는 행성의 경동맥에 꽂힌 거대한 주사바늘로 보였다.

"저기야..."

노인이 된 이녹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탑의 최상부를 가리켰다.

손가락 끝마디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다.

"저곳은 건물이 아니야. 지구의 엔트로피를 흡수하여 무해유로 송출하는 거대한 빨대(Straw)지. 인간들의 욕망, 경쟁, 피로, 그 뜨거운 에너지를 먹이 삼아 영원의 세계를 살찌우는 기생충."

그들은 화물용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이녹의 등에는 배낭 크기로 개조한 '휴대용 공명 증폭기'가 메여 있었다. 에코 챔버의 핵심 부품을 뜯어낸, 그의 마지막 무기.

젊은 시절의 그라면 한 손으로 들었을 무게였지만, 지금의 늙은 육체에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허리가 휘고 무릎이 꺾였지만, 그는 일리아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것은 그의 십자가(Cross)였다.

"위잉..."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시작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50층, 100층, 150층.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져 귀가 멍멍해졌다. 하지만 그 멍멍함은 단순한 기압 차가 아니었다.

[경고. 엔트로피 감소 구역 진입]

180층을 넘어서자, 엘리베이터 내부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와이어가 스치는 소리도 사라졌다.

완전한 정적.

천장의 강철 패널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똑, 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놈들이 왔어."

이녹이 쉼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장의 강철이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흘러내리는 물질의 눈물. 검은 그림자들이 엘리베이터 벽을 투과하여 스며들어 왔다. 사일런스의 친위대.

그들은 좁은 밀실을 압축해 두 사람을 캔 깡통처럼 찌그러뜨리려 했다.

"일리아, 내 눈이 되어 줘."

이녹은 눈을 감았다. 백내장이 온 흐릿한 시각은 방해만 될 뿐이다. 그는 이제 육체의 감각이 아닌, 영혼의 파동으로 세상을 보아야 했다.

"3시 방향! 머리 위!"

일리아의 외침과 동시에 이녹이 증폭기의 현(String)을 튕겼다.

"과직!"

고주파의 충격파가 좁은 밀실을 때렸다. 침묵의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하지만 이녹의 입에서도 "쿨럭!" 하고 검은 피 덩어리가 튀어나왔다. 한 번 현을 튕길 때마다 수명이 멩텅이로 깎여 나가는 고통. 폐포가 삭아 문드러지고 있었다.

"더... 더 위로 가야 해."

이녹은 비틀거리며 천장의 비상 탈출구를 열었다.

2. 유리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를 빠져나온 그들은 탑의 외벽, 유리 청소용 곤돌라가 매달린 난간에 섰다.

강풍이 몰아치는 200층 높이. 발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시는 빛나는 점들로 이루어진 회로 기판처럼 보였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득한 높이.

하지만 위쪽은 더 끔찍했다.

탑의 유리창이 깨지며 수십 명의 사일런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중력을 무시하고 수직의 유리벽을 네 발로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거미 떼처럼.

"이놈, 당신 몸으로는 무리예요!"

"우린 지금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의식과 의지로 싸우는 거지."

두 사람은 흔들리는 곤돌라에 올랐다. 이놈은 제어 장치의 전선을 뜯어내 자신의 손가락에 직접 감았다.

"지지직!"

스파크가 튀며 노인의 손가락 살이 타들어 갔다. 살 타는 노린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는 생체 전기를 동력으로 곤돌라를 로켓처럼 쏘아 올렸다.

"도플러 버스트(Doppler Burst). 수직 상승!"

이놈이 증폭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소리의 반동을 이용해 곤돌라를 밀어 올렸다.

쫓아오던 사일런스들이 그 충격파에 휩쓸려 허공으로 튕겨 나갔다. 추락하는 그들의 몸은 지상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가루가 되었다.

마침내, 세상의 꼭대기.

곤돌라가 최상층 테라스에 처박혔다. 흙먼지와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두 사람은 바닥을 기었다.

[제14장] 넥서스 (The Nexus)

1. 완벽한 젊음, 무너진 늙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아래쪽의 폭풍우와 달리, 이곳의 밤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가깝게 빛나고 있었지만, 반짝임(Twinkle)이 없었다. 대기의 흔들림이 없는, 사진처럼 박제된 별들. 시간이 흐르지 않는 하늘.

그 거대한 통유리 문 너머로 '다툼 홀(Datum Hall)'이 보였다.

가구도, 벽도 없었다. 오직 공간의 한가운데, 빛조차 흡수해버리는 절대적인 검은색 액체 거울

하나가 허공에 떠 있었다.

지구와 무하유를 잇는 통로이자, 이 모든 침묵의 자궁. 넥서스(Nexus).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녹과 똑같은 얼굴을 한, 하지만 늙지도 상처 입지도 않은, 완벽한 젊음의 형상.

"어서 와라, 썩어가는 형제여."

사일런스의 대리인, 제로(Zero)가 늙어버린 이녹을 보며 비웃고 있었다.

거울을 사이에 둔 두 존재.

한쪽은 영원히 늙지 않는 매끄러운 데이터, 다른 한쪽은 피와 고름이 흐르는 쭈글쭈글한 육체.

2. 0의 회유

"어리석군."

제로의 목소리는 고막을 거치지 않고 뇌의 전두엽을 직접 타격했다.

"너희는 늙고, 병들고, 추해졌다. 그것이 너희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인가? 고통을 멈추게 해 주겠다. 다시 무(無)로 돌아오라. 그곳에는 이별도, 노화도, 상실도 없다."

허공에 떠 있는 검은 거울, 넥서스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역파동.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엔트로피를 강제로 0으로 되돌리는 침묵의 중력.

"으음..."

이녹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씻가루를 마시는 듯한 통증. 심장 박동은 1분에 3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생체 전기가 꺼져가고 있었다.

"기억해? 우리가 처음 이 진흙탕 같은 세계를 동경했던 이유."

일리아가 비틀거리는 이녹을 뒤에서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녹의 등 뒤로 전해졌다.

"저것들에겐 없고, 우리에게겐 있는 것."

이녹이 피 묻은 입술을 달싹였다. 흐릿한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그래... 체험. 그리고 그 끝이 있다는 것."

이녹이 일리아의 손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늙고 병든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버텼다. 두 발로 대지를 디뎠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사무치게 아름답다는 것."

이녹은 바닥에 떨어진 증폭기의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그의 유언이자, 인류에게 바치는 헌사(Tribute).

[제15장] 최후의 연주: 카오스 (The Chaos)

"이 연주는... 나의 무덤이자 너희의 장송곡이다."

이녹이 증폭기의 볼륨을 한계치 이상으로 꺾었다.

"우우우웅..."

그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혈액 한 방울, 마지막 텔로미어 한 조각, 마지막 남은 1초의 수명이 모조리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콰아아앙-!!"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 폭발이었다. 빅뱅(Big Bang)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수집해 온 지구의 모든 소리들이 해일처럼 터져 나왔다.

새벽 시장의 흥정 소리, 파도 소리, 빗소리, 천둥소리, 아이의 울음, 노인의 기침 소리.

질서 정연한 우주에 '생명'이라는 이름의 통제 불가능한 카오스가 투입되었다.

[경고. 임계점 돌파. 엔트로피 무한대]

증폭기가 붉게 달아올랐다. 금속 코일이 녹아내렸다.

동시에 이녹의 육체도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검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세어 바스러졌고, 피부는 가뭄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터졌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연료로 태워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멈춰! 멈추란 말이다!"

제로가 처음으로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완벽한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검은 거울 표면에 균열이 발생했다. 매끄러운 영원의 상징에, 불완전하고 거친 삶의 생채기가 새겨지고 있었다.

"이것이 삶이다!"

이녹이 피를 토하며 절규했다.

"생각하고, 살려 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 생명 현상의 체험이 바로 우리다!"

마지막 한 음.

이녹은 멈추기 직전인 자신의 심장 박동, 그 마지막 한 번의 "쿵" 소리를 증폭기에 때려 박았다.

"파-아-앙!!!"

세상이 멈췄다.

검은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진 다툼(a bit-data) 조각들은 하늘로, 우주로 흩어져 사라졌다. 넥서스가 붕괴되었다.

동시에, 제로의 형상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소음을 견딜 수 없는 침묵은, 소음이 가득 찬 공간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제16장] 휴머스 (Humus: 흙)

폭풍이 지나갔다.

다툼 흙의 천장 유리가 깨지고, 진짜 밤하늘이 드러났다. 박제된 별들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정적 속에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볍고, 건조한 소리.

"이녹!"

일리아가 달려가 그를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것은 건장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작고 늙은 육체였다.

"아..."

일리아의 손이 떨렸다.

이녹의 몸이 부서지고 있었다. 신화 속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흙으로 변하고 있었다.

생명력을 다 태워버린 육체는 급격한 산화를 일으켜,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탄소 덩어리, 흙(Humus)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일리아..."

이녹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서서히 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들려? 세상이 다시... 소리 내기 시작했어."

일리아는 귀를 기울였다. 저 아래, 까마득한 지상에서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발소리, 공사장의 소음.

그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고, 활기찬 왁자지껄(Hubbub).

"네. 들려요. 아주... 아름다운 소음이에요."

일리아가 그의 뺨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물이 이녹의 메마른 뺨에 닿자, 그 부분의 피부가 촉촉한 젖은 흙처럼 변했다.

"나의 음악은 여기서 끝이야."

이녹이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고운 흙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

"슬퍼하지 마.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언가의 꽃이 되고, 어딘가의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다시...세상 속에 섞일 거야."

"이녹, 가지 마요. 제발..."

"고마웠어, 일리아. 이 짧은 생명 체험...소풍...너와 함께해서."

"후우..."

그의 마지막 숨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일리아가 그를 꼭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녀의 팔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그 안에 수북이 쌓인 한 줌의 검고 따뜻한 흙뿐이었다.

일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분명 방금 전까지 이녹이었던 흙을 두 손으로 퍼 올렸다.

그녀는 그 흙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비 맞은 흙냄새가 났다. 생명의 향기가 났다.

[에필로그] 도중 (On the Way)

1년 후. 도심의 작은 공원.

일리아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얀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다. 대신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옆 화단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정원사의 계획대로가 아닌, 무질서하게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 사각" 소리를 냈다.

일리아는 가만히 화단의 흙을 만져보았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었다. 예전의 결벽증적인 그녀라면 불쾌해하며 씻어냈을 더러움.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것은 '접촉'이었다.

이 흙 속에 인간의 역사, 생명의 순환, 그리고 이녹의 노래가 섞여 있었다.

지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사랑하고, 병들고, 죽어갔다. 사일런스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삶은 여전히 투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리아는 알았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도중에 있다.'

무형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여정. 그 도중에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아파하

고, 소리를 낸다.

일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너머 어딘가, 영원히 침묵하고 있는 별들을 향해. 그리고 이제 눈길을 자신의 발밑으로 돌렸다. 싹들을 틔우고 있을, 한때 영원이었던 흙, 그를 향해.

"들리니? 이쪽."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스르륵" 하는 파동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일리아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연주해야 할 음악과, 소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날들이 남아 있었다.